

건조물 문화재의 보수·복원 방향 (建造物 文化財의 補修·復元 方向)

張 慶 浩

文化財研究所 美術工藝研究室長

근래(近來)에 갑자기 문화재(文化財)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호(保護) 운동(運動)이 전국적(全國的)으로 전개(全開)되어 가고 있다. 이것도 어떤 면(面)으로 살펴 볼 때 우리 나라가 그만큼이나 번영(繁榮)하고 있다는 증표(證票)가 되겠지만 또한 고도(高度)의 물질문명(物質文明)이 발달(發達)하고 있는 세계문화(世界文化)의 전파(傳播)와 범람중(汎濫中)에 과거(過去)와 내 것을 찾아보자는 세계적(世界的) 추세(趨勢)이기도 하다. 이리하여 그 동안에 문화재(文化財)를 보수(補修), 복원(復元), 보존(保存)하는 열의(熱意)는 날로 늘어나 이에 종사하는 기구(機構)가 국내(國內), 국외(國外)로 많이 발족(發足)되고 또 전문가(專門家)도 많이 양성(養成)되어 이 일을 맡게 되었으며 실제적(實際的)으로 많은 예산(豫算)을 투입 그 보존(保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의(熱意)가 과열(過熱)될 때 우리는 반드시 과오(過誤)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일단 생각(生覺)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과열(過熱)된 쇠를 적당히 식혀가며 조형(造形)하듯이 우리도 그 흥분(興奮)속에서 우리가 해온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 성과(成果)를 되돌아보며 전문적(專門的)인 차원(次元)에서 그 보존(保存), 보수 방향(補修方向)을 설정(設定)해 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974년에 방한(訪韓)한 블란서(佛蘭西) 고고학자(考古學者) B.Groslier 박사(博士)의 말에 의(依)하면 블란서에서는 유적(遺蹟)을 발굴(發掘)할 때, 좋은 유물(遺物)이 지하(地下)에서 노출(露出)하기 시작(始作)하면 고고학자(考古學者)들 혹은 발굴자(發掘者)들의 흥분(興奮)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일단 발굴작업(發掘作業)을 중단(中斷)하고 흙을 도로 묻은 후 이 유물(遺物)에 대(對)한 검토를 충분(充分)히 한 후 며칠이 지나 다시 발굴(發掘)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발굴(發掘)에만 적용되는 현명책(賢明策)이 아닐 것이다. 손상(損傷)이 되기 쉬운 모든 문화재(文化財)는 같은 방법(方法)으로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筆者)는 건조물문화재(建造物文化財)를 다룸에 있어 일단 흙을 되묻은 상태로 돌아가서 그 검토(檢討)를 하고 그 방향(方向)을 잡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문화재(文化財)는 동산(動産), 부동산(不動産)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와 음악(音樂), 공예기술(工藝技術), 무용(舞踊) 등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성지(城址), 궁지(宮址), 고분(古墳) 등의 일반기념물(一般記念物) 또 동(動), 식물(植物), 광물(鑛物) 등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국민생활(國民生活) 풍습(風習)에 관한 자료(資

料)인 민속자료(民俗資料)로 분류(分類)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화재(文化財)는 우열(優劣)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중요(重要)하다. 그러나 건조물(建造物)처럼 시급(時急)히 그 보존(保存) 방안(方案)의 연구(研究)가 당면(當面)된 문화재(文化財)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건조물(建造物)은 만인(萬人)의 관심사(關心事)이고 인간(人間)의 밀집(密集)한 생활관계(生活關係)를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對)한 평가(評價)와 비판(批判)이 가(加)해질 적마다 어떤 변형(變形)을 일으킬 소망(所望)이 많이 내포(內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자체(自體)가 내포(內包)하고 있는 특수(特殊)한 성격(性格) 때문에 건조물(建造物)의 보수(補修) 보호방향(保護方向) 설정(設定)이란 극(極)히 어려운 과제(課題)이다.

그래서 서양(西洋)에서는 건조물(建造物)의 보수(補修), 복원(復元)을 연구(研究)하려면 그 붕괴(崩壞)의 역사(歷史)를 먼저 연구(研究)하기 전(前)에는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문화재(文化財)는 항상 붕괴(崩壞)와 복원(復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붕괴(崩壞)나 손상(損傷)없는 복원(復元)이나 보수(補修)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例)를 들어 Roma에 있는 세계적(世界的)인 문화재(文化財) Colosseum의 붕괴(崩壞)와 복원보수(復元補修)의 역사(歷史)를 간단히 살펴보자. 기록(記錄)에 의(依)하면 Colosseum은 A.D. 80년 Titus시대(時代)에 건립(建立)되어 투기(鬪技)를 관람(觀覽)하는 원형극장(圓形劇場)으로 사용되었다가, A.D. 223~A.D. 442에 첫 중수(重修)를 가졌고 1084년에 노르만에 의(依)하여 붕괴(崩壞)되었고 다시 1348년에 지진(地震)에 의(依)하여 크게 파손(破損)되었다. 그후부터는 이 역사적(歷史的) 건조물(建造物)은 채석장(採石場)으로 쓰여져 그 재료(材料)는 근처의 교량(橋梁)과 광장(廣場) 건물(建物) 등에 쓰여져 오늘날 또 다른 역사적(歷史的) 문화재(文化財)를 만들고 1670년에는 초석공장(硝石工場)이 이곳에 세워져 본격적으로 파괴(破壞)되었다. 1727년에는 수녀(修女)들의 거처(居處)로 사용(使用)되고 1737년에는 식민지(植民地) 전쟁용(戰爭用) 화약고(火藥庫)로 사용되다가 폭발(爆發)로 인하여 남측(南側)의 벽(壁)이 완전(完全)히 붕괴(崩壞)되었다. 그후 1813년에 처음으로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를 인식(認識)하고 붕괴(崩壞) 매몰(埋沒)된 부분(部分)을 발굴(發掘)하기 시작(始作)하여 1824년에는 오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위에 기술(記述)한 것은 기록(記錄)에 나타난 커다란 사건(事件)이고 그 외(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사건(事件)의 손상(損傷)과 보수(補修)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생각된다. 여하튼 이 건물(建物)은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붕괴(崩壞)와 보수(補修)·복원(復元)의 역사(歷史)가 반복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또 하나의 예(例)를 들면 같은 시(市)에 있는 Pantheon인데 이것은 B.C. 27년에 Agrippa에 의(依)해 건조(建造)되어 희랍의 신(神)인 Venus ar를 봉사하던 곳이었다. 당시(當時) 그 건물(建物)의 지붕 ‘돔’은 청동(靑銅)으로 씌워졌으나 6세기부터 그 재료(材料)가 뜯겨 훼손(毀損)되기 시작했고 609년에는 이곳이 성당으로 바뀌었고 663년에는 이 재료(材料)를 “콘스탄티노플”로 많이 옮겨갔으며 그후 교황(敎皇) Gregory 3세(世)는 새로운 재료(材料)인 납으로 이 지붕을 씌워 보수(補修)시켰다. 그러다가 1270년에는 그들은 종탑(鐘塔)을 세웠고 14세기에는 Sinibeldi가족(家族)의 성(城)이 되어 주위에 웅성(甕城)을 둘렀다.

1626년에는 덴마크와 전쟁준비(戰爭準備)로 이곳에 남은 청동(靑銅)을 떼어 80기(基)의 대포(大砲)를 만들고 그 외(外)는 Bernini에 의(依)해 S.Peter Canopy의 4기등을 만

들었다.

이렇게 문화재(文化財)는 그 시대(時代)의 사회(社會)와 관리자(管理者)의 요구(要求)에 따라 수(數)많은 변형(變形)을 일으키고 또 파괴(破壞) 개조(改造)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 나라 문화재(文化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서양(西洋)의 것보다 기록(記錄)이 자세치 않아 어느 부분(部分)을 어떻게 변형(變形)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상기(上記)한 그 시대(時代)의 사회생활(社會生活)과 관습(慣習)에 따라 수(數)없이 개조(改造) 변형(變形)되었고 자연적(自然的) 혹은 인위적(人爲的) 붕괴(崩壞)에 따라서도 많은 중창(重創)의 역사(歷史)를 갖게 했다. 예(例)를 들면 전라남도(全羅南道) 강진(康津)에 있는 월출산(月出山) 무위사(無爲寺)는 사적기록(史蹟記錄)에 의(依)하면 신라진평왕(眞平王) 39년(617년)에 원효국사(元曉國師)에 의하여 초창(初創)되어 관음사(觀音寺)라 칭(稱)하였다 하며 그후 신라 헌강왕(憲康王) 원년(元年)(875년) 이르러 도선대사(道詵大師)에 의하여 중창(重創)되고 사찰명(寺刹名)도 고치었는데 이때 경내(境內)에는 대웅보전(大雄寶殿)이하 보광전(寶光殿), 미타전(彌陀殿) 수록전(水陸殿), 나한전(羅漢殿), 대장전(大藏殿) 등에 여러 불상(佛像)이 있었다 한다. 그후 다시 고려(高麗) 정종(定宗) 원년(元年)에 이르러서는 선각국사(詵覺國師)가 이를 삼창(三創)하여 또다시 사명(寺名)을 서옥사(苧屋寺)로 고쳐 부르게 되었던 것이 조선(朝鮮) 명종(明宗) 10년(1555년)에 태감선사(太甘禪師)가 사창(四創)함에 이르러 비로소 사명(寺名)도 무위사(無爲寺)로 정(定)해지게 되었다. 이때 가람(伽藍)으로서는 비로전(毘盧殿), 미타전(彌陀殿), 문수전(文殊殿) 이외(以外)에 많은 승방(僧房), 요사(寮舍)와 35개소(個所)에달하는 다수(多數)의 암자가 달려 있었다고 한다. 초창(初創)때인 원효국사(元曉國師) 시대(時代)에는 신라(新羅)의 사찰가람(寺刹伽藍)이 황룡사(皇龍寺)나 분황사(芬皇寺)와 같이 탑(塔)을 중심(中心)으로 배치(配置)한 일탑식(一塔式)(혹은 단탑식(單塔式))이 성행(盛行)하던 시대(時代)였고 도선국사(道詵國師)인 신라말(新羅末)에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부터 성행(盛行)한 금당중심(金堂中心)의 쌍탑식(雙塔式)(이탑식(二塔式)) 가람(伽藍)이 많이 쓰였고 고려시대(高麗時代)와 조선시대(朝鮮時代)도 단탑식(單塔式) 혹은 자유(自由)로운 산지가람(山地伽藍) 등 그 나름대로 가람(伽藍)과 불사(佛寺) 의례면(儀禮面)에서 다른 특징(特徵)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현재(現在)의 무위사(無爲寺) 가람(伽藍)을 보면 단탑식(單塔式)도 쌍탑식(雙塔式)도 아닌 배치(配置)를 보여주고 있어 초기(初期)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것은 거의 볼 수 없어 도중(途中)에 중창(重創)을 할 때마다 그 시대(時代)의 사회의식(社會儀式) 또는 관리자(管理者)의 의식(意識)에 따라 많은 개변(改變)을 거쳐 현재(現在)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무위사의 전체적(全體的) 배치(配置)에 국한(局限)되지 않고 그 개개(個個)의 건물(建物) 세부(細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신라(新羅)때 창건(創建)한 건물이라도 고려(高麗)때에 중□(重□)을 거친 것이라면, 고려(高麗)때 새로 통용(通用)되던 세부수법(細部手法)을 많이 가(加)하고 혹은 개조(改造)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變化)를 거친 건조물(建造物)은 그 원초(原初)의 형(形)이 어느 것인지 후세인(後世人)은 기록(記錄)과 치밀(緻密)한 조사(調查)없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원형(原形) 변경(變更)을 이룬 오래된 문화재(文化財)는 비록 상기(上記)한 예뿐 아니라 대부분의 오래된 건조물은 다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역사적(歷史的)으로 변화(變化)를 많이 가져온 건조물을 살펴 볼 때 우리는 그 어느 것까지를 원형(原形)으로 한정(限定)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問題)에 봉착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현시점(現時點)에서 그것

이 보수보존(保守保存)을 위해서는 어느 것까지를 보존(保存) 복원(復元)하고 어디서부터 불필요(不必要)한 부분으로 단정(斷定)하여 제거(除去)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問題)이다. 예를 들어 경북영주(慶北榮州)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이 건물(建物)은 기록(記錄)에 의하면 의봉(儀鳳) 원년 즉 문무왕(文武王) 16년(676년) 의상(義湘)에 의하여 창건된 이래 약 600년만에 전화(戰禍)로 소실(燒失)되었고 홍무(洪武) 9년(1376년) 원융국사(圓融國師)(주(註))에 의하여 법당(法堂)이 개조되고 불상(佛像)을 개금(改金)했다 하나 이때에 어떻게 개조(改造)되었는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다만 이 개조(改造) 전(前)에 소실(燒失)된 법당(法堂)이 복원(復元)되었으리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광해군(光海君) 3년(1611년)에는 풍우(風雨)로 연목(椽木)이 꺾어져 그 다음해 역사(役事)를 시작 1년만에 마쳤다는 기록(記錄)이 있다. 그후 이 건물은 1916년에 일인(日人)들에 의하여 완전(完全) 해체(解體) 보수(補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하튼 이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은 고려시대의 우아(優雅)한 건축(建築)임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建物)의 각 부분이 전부 고려(高麗) 초창시(初創時)의 것이 그대로 전(傳)해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건물(建物)을 보존하고 보수하는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해 주기 전에 가장 중요(重要)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課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얼른 생각하기 쉽게 전면(前面)에 있는 정자(井字)살문(門)을 들 수 있겠는데 이 문은 건물 후면(後面)에 있는 판문(板門)과 그 양옆에 불박이 살창문을 비교해 볼 때 시대가 떨어지는 양식(樣式)으로, 현존해 있는 다른 고려건물(高麗建物)의 세살창과 같이 원초형(原初形)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門)은 언제 어떻게 하여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것은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그 시대의 그 건물(建物)이 지배(支配)받던 사회(社會) 환경이 말해 줄 것이다. 처음에 불도(佛道)를 닦던 도인(道人)만이 이용(利用)하던 법당(法堂)은 좀 어두운 곳이라도 지장이 없이 오히려 바깥(속세(俗世))과 떨어져 있는 삼말(三昧)의 지경에 달하는 수단(手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포교(布教)로 인하여 차츰 신도(信徒)들이 많아지면 법당의 용도(用度)가 빈번한 시기(時期)에 와서는 이 어두컴컴한 실내(室內)가 불편(不便)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불박이창과 판문(板門)은 정자(井字)살 백지첩문(白紙貼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건축(建築)도 어느 시대(時代)인가 후에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은 비록 문짝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다른 세부양식(細部樣式)에서도 마찬가지로 변(變)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해지는 문화재(文化財)를 구라파(歐羅巴)에서는 시대별(時代別)로 달라진 형태를 고증(考證), 구분(區分)하여 몇 가지의 모형(模型)을 만들어 그 건물 앞에 전시(展示),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세부적(細部的)인 변형(變形) 고증(考證)이 없어 모형(模型)을 만들기는 어려울 때가 많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의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꾸 변(變)하여 가는 것이며 또 이것이 바로 그 문화재(文化財)의 역사(歷史)를 말해 주는 자료(資料)도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變化)되어 온 건조물(建造物)은 어떻게 보수(補修) 보존(保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問題)는 앞에서 이미 제기(提起)해 놓은 원형(原形)의 한정(限定)이란 말로서 설명(說明)할 수 있겠다. 우리가 현시점(現時點)에서 보존(保存)해야 할 형태(形態)를 원형(原形)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원초형(原初形)과는 다른 개념임) 제거(除去)해야 할 부분을 변형(變形)된 혹은 변조(變造)된 것으로 말한다면 모든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 복원방향(復元方向)은

개개별(個個別)로 원형(原形)을 한정(限定)하여 이를 보존(保存)하는 방향(方向)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원형(原形)의 한정(限定)을 짓기에는 많은 연구(研究)와 조사(調査)가 필요(必要)하며 또 판단(判斷)을 낳게 하는 충분(充分)한 의견(意見)이 있어야 한다. 건물의 현재(現在)상태를 무조건(無條件) 그대로 보존 고수해야 한다는 것도 또 그 건물(建物)의 원초적(原初的)인 형(形)을 무조건 되찾자는 것도 합당(合當)하다고는 볼 수 없다. 전자(前者)의 경우 의미없는 잡다(雜多)한 부착물(附着物)이 가(加)해져 오히려 양식(樣式)과 기법(技法)에 혼돈(混沌)을 나타내고 역사적(歷史的)인 표현(表現)이 어렵게 된다. 후자(後者)의 경우는 그 건물에 가해졌던 역사적 사실(事實)을 모두 없애는 결과가 되며 문화재(文化財)에 대(對)해 또 다른 큰 변조(變造)를 가하는 결과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아무리 원초식(原初式)으로 복원을 하더라도 현대인(現代人)이 현대(現代)의 재료(材料)를 써서 현대에 제작(製作)된 도구(道具)로 만든 원형이란 생명 없는 모형(模型)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조물을 보존하는 기본적(基本的) 태도(態度)는 어느 건조물(建造物)이든지, 그것이 용도(用途)가 부여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듯이 역사적(歷史的) 정속물(延續物)로서, 혹은 사건(事件)을 알려주는 역사(歷史)의 고증물(考證物)로서, 이것에 연구(研究) 접근(接近)하는 태도(態度)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현재(現在) 우리들이 행(行)하고 있는(이점에서 전문가(專門家)들에 의하여 많은 비판(批判)을 받고 있지만) 건조물(建造物) 주변에 현대적(現代的) 가미(加味)란 것도 그것이 현재(現在) 그렇게 행(行)해져야 할 뚜렷한 이유(理由)가 내포(內包)되어 있고 또 그 이유가 후세(後世)에 분명히 전(傳)해질 수 있다면 이 사실(事實)로 일단은 역사적(歷史的)인 연속사항으로 수긍(首肯)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항상 우리가 주의(注意)하고 무시(無視)해서는 안 될 점은 그 문화재(文化財)의 소위(所謂) 역사적(歷史的) 비중(比重)(Dead weight of past)이란 것이다. 문화재는 그 어느 것이든 수천년(數千年)을 지나도록 원형(原形)이나 현상(現狀)을 그대로 보존시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천재(天災), 풍화(風化), 부식(腐蝕) 등 난동손상의(亂動損傷外)에도 전화(戰禍), 보수(補修), 개수(改修), 국토건설(國土建設), 자고(Vandalism) 등의 인위적(人爲的)인 손상(損傷)을, 크게 작고간에 완전(完全)히 막을 수 있는 방법(方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재(文化財)에 대하여 일본(日本)의 ‘히로시다이후구’씨가 UNESCO 보고서(報告書)에 표현(表現)한 ‘Dead weight of past’란 개념(概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느 시대(時代)에서나 과거의 문화요소(文化要素)를 모두 완전(完全)하게 보존(保存)한다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 그러나 그 문화(文化)의 명맥(命脈)을 잇기 위하여서는 어떤 한도 내(限度內)에서 이 유산(遺産)이 유지 보존(保存)되어야 한다. 이것이 즉 과거의 비중이란 말로 표현(表現)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현재(現在)의 모든 문화요소(文化要素)를 미래(未來)에 보존전달(保存傳達)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이것은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경우 현재(現在)있는 이조백자(李朝白磁)가 모두 지정(指定)될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개념(概念)은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에서는 좀 다른 각도(角度)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조물(建造物)의 문화재(文化財)는 그 보존율(保存率)이 낮고 또 단일품목(單一品目)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건조물(建造物)은 상기(上記)했듯이 역사(歷史)를 설명(說明)해주는 가장 중요(重要)한 복합자료(複合資料)이기 때문에 단일품목(單一品目)과 동일(同一)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건조물 문화재의 ‘역사적(歷史的) 비중

(比重)'이란 그것의 부분적인 변형(變形)이 일어날 행위(行爲)를 가할 때 즉 보수복원(補修復元)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개념(概念)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를 보수(補修)할 때 어떤 한도(限度)를 넘어서 변형(變形)이나, 개수(改修)를 행하면 그 역사적(歷史的) 명맥(命脈)을 끊어 놓는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목조 건물(木造建物) 문화재(文化財)에 덮혀있는 기와가 질(質)이 나쁘고 규격(規格)이 일정(一定)치 않다 하여 무조건(無條件) 새로운 개와(蓋瓦)로 전부 갱신(更新) 교체(交替)한다면 이것은 이 건물(建物)과 역사(歷史)를 같이하며 그 수리(數理)때마다의 변화(變化)를 말하여 줄 좋은 고증자료(考證資料)를 없애는 것이 되어 결국 건물(建物)의 역사적(歷史的) 설명(說明)과 표현(表現)을 잃게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Dead weight of past'의 한계(限界)를 넘는 것이다. 이것은 건물(建物) 각부재(各部材) 하나 하나에서도 같은 설명(說明)이 가능(可能)하다. 원형(原形) 기둥의 일부(一部)가 썩었을 때 옛 수법을 되살려 깎아 놓았다 하더라도 주초부분(柱礎部分)의 '그랭이'질 이라던가 표면(表面)을 깎기 위해 사용한 자귀 자루의 길이에 따른 차이 등 세밀함 부분에서는 원형(原形)과는 엄청난 차이(差異)를 나타내어 그것을 보고 원형을 설명(說明)할 수는 도저히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간(時間)이 흐르면 원형(原形)과 보수부분(補修部分)에 혼돈(混沌)만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Italy" 같은 문화재(文化財)를 많이 다루는 선진국(先進國)에서는 문화재보수를 할 때 극단적으로 이질재(異質材)를 사용하여 대리석(大理石)을 때우는데 붉은 벽돌을 사용하고 붕괴(崩壞)된 성당을 복원하는데 남아있는 기둥 등 구재(舊材)를 이용(利用)하되 양식(樣式)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복원(復元)하여 신구(新舊)를 뚜렷이 밝혀준다. 이렇게 하여 붕괴된 건조물의 전체로서의 명맥(命脈)은 끊어졌어도 부분적(部分的)인 명맥(命脈)은 파편(破片)이나마 활용(活用)하여 유지 보존(保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外國)의 예를 우리는 직접 받아들인다는 것은 건물(建物)과 유구(遺構)의 성격(性格)의 차이(差異)로 어렵다 할 수 있으나 그 이념(理念)만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믿는다. 위에 기술(記述)한 사항(事項)을 종합(綜合)하여 결론적(結論的)으로 말하면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는 원형(原形)의 보존(保存)+훼손부분(毀損部分)의 보강(補強)+현실(現實)의 요구(要求)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원형의 한계(限界)를 찾아 원형자체의 보존을 행하여야 한다.

둘째, 훼손부분(毀損部分)의 보강(補講)을 위한 보수(補修), 복원을 해야한다.

셋째, 현실요구(現實要求)에 의한 첨가(添加)사항은 당대(當代)의 전문가(專門家)나 후속인(後續人)이 수긍(首肯)이 될 뚜렷한 이유(理由)와 방향(方向)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상기(上記)한 요항(要項)중 원형(原形)의 보존(保存)은 전문적(專門的)이고 과학적(科學的)인 차원(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훼손부분의 보강 및 복원은 기술적(技術的) 미술적(美術的) 혹은 건축사학적(建築史學的)인 차원(次元)에서, 또 '현실적(現實的) 요구(要求)'는 용도(用途)와 국민복지(國民福祉)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보수, 보존을 위하여는 건축학자(建築學者), 미술사학자(美術史學者), 보존과학자(保存科學者) 또 필요(必要)하면 고고학자(考古學者)까지, 많은 분야(分野)의 전문가(專門家)가 동원(動員)되어 의견(意見)을 갖고 협력(協力)하지 않으면 바라는 바 목적(目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 원형(原形)의 한계(限界)를 찾는 때는 건조물(建造物)의 중도(中途)의 첨가(添加)된 속물(屬物)이라도 그것이 이미 역사적(歷史的)인 사실(事實)을 설명(說明)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원형으로 포함(包含)시켜 보존(保存)되어야 할 것이며, 훼손부분의 보강(補講), 복원은 원형(原形)을 보존하기 위한 즉 원

형과 파급적(波及的)인 타부분(他部分)의 훼손(毀損)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보수(補修)로 그쳐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석조물(石造物)일 때는 가능(可能)한 원형(原形)의 보존(保存)과 보강(補講)만을 위한 보수(補修)로 그치고 되도록 해체(解體)하지 않는 것이 현명(賢明)하다. 끝으로 현실(現實)의 요구(要求)로 행하여지는 국민정신(國民精神)의 복지(福祉)를 위한 첨가물(添加物)이란 문화재(文化財) 주위(周圍)의 환경개선(環境改善), 거국적(學國的)인 국토건설(國土建設) 및 용도(用途)의 부여(付與)로 인한 변화(變化) 등 불가능(不可能)한 사항(事項)들인데 이 경우에서도 다방면(多方面)의 전문가(專門家)의 충분(充分)한 검토를 받아 어느 방법(方法)이 참된 국민복지(國民福祉)를 위한 보존방향(保存方向)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의 보수(補修), 복원방향(復元方向)을 기술(記述)했으나 건조물(建造物)은 그 개개(個個)의 특성(特性)과 환경(環境) 조건(條件)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包括的)인 세부방침(細部方針)은 세울 수 없다. 여기서 더 많은 이론(理論)을 전개(展開)하자면 장편(長篇)의 논문(論文)이 되겠지만, 이상(以上)으로 간단한 개념(概念)만 논술(論述)하고 다시 한 번 강조(強調)하며 끝을 맺고자 하는 것은 건조물문화재(建造物文化財)는 역사(歷史)에 연관(聯關)한 연속물(連續物)로서 혹은 그 고증물(考證物)로서 후세(後世)에까지 그 변형고증(變形考證)이 실재(實在)로 또 기록(記錄)으로 뚜렷이 전(傳)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確實)히 말해 두고자 한다.

<주(註)> 무량수전(無量壽殿) 녹기(綠旗)의 원융운운(圓融云云)은 그의 실제 생존(生存) 연대(年代)와 맞지 않아 동명이인(同名異人)이거나 원응국사(圓應國師)의 오기(誤記)라 할 수 있음.

參考文獻

- 1) 韓國 佛敎研究員 韓國의 寺刹 9, 浮石寺.
- 2) 文敎部, 無爲寺極樂殿 修理報告書.
- 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韓國의 古建築.
- 4) Unesc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 5) W. Frodl, The history of restotation.
- 6) Panl philippot, Restoration philosophy criteria. guidelines.